

강진군, '작천면 야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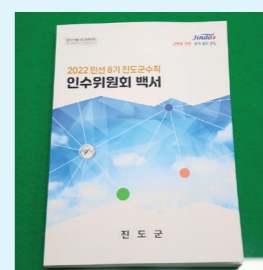


지난 5일 강진군 강진원 군수, 윤영문 작천면장, 강윤기 지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천면 야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준공식이 개최됐다.

복지회관 신축 등 3억 투입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강진원 군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

강진군은 2021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대상지로 야동마을을 선정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설계획용역 과정을 거쳐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했다. 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84㎡의 복지회관 신축,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 생활 복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특별히 이번 준공식은 야동마을 씨레시팅 행사가 병행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씨레시팅이란 모내기를 마치고 온 동네 사람이 한데 모여 간단한 음식을 장만해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진군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작천 야동마을과 강진 목리마을, 성전 월남마을을 포함 3개의 2021년 선정사업을 모두 준공한 가운데 마을주민 역량교육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선정된 성전 송학마을, 당산마을, 군동 덕천마을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신규 인구 유입만큼이나 기존에 살고있는 정주민들의 삶의 질 높여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농산어촌 마을의 주민복지환경 개선, 안전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수직 인수위 활동 백서 발간...군수에 전달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5일(금) 오후 김희수 군수에

해남군 "어르신, 더울땀 무더위 쉼터로"

595개 마을 경로당 무더위 쉼터 운영, 농작업시 안전관리 당부

해남군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은 폭염 대비 취약노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관내 595개 마을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폭염 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군에서는 쉼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냉방기기 작동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물가 상승을 감안해 냉난방기 지원 단

가를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621개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경로당은 폐쇄 조치한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폭염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사전 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추가 설치해 응급상황

대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은 무더운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실외활동이 많은 사업단은 이른 오전 중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응급상황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장흥군은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보림사 가지산 일원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11개를 신규로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이란 전 국토를 100km부터 10m 단위까지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체계 시설물이다. 주소가 없는 산악이나 해양 등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장흥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지점번호판 435개를 설치하고, 매년 훼손·망실된 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영철 민원봉사과장은 "주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과 주요 산책길, 등산로 등 도로명이 없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적극행정 실천 3GO 릴레이 캠페인 전개

'적극행정 실천하GO, 소극행정 근절하GO, 내가 먼저 앞장서GO'



완도군은 적극행정을 강화하고자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적극행정 3GO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적극행정이 조직 문화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3GO'는 '적극행정 실천하GO, 소극행정 근절하GO, 내가 먼저 앞장서GO'의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적극행정 실천 결의문 서명과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이 진행된다. 결의문에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캠페인의 선두 주자로 나선 강성운 완도부 군수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군정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캠페인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전 직원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개 전달했다. 259쪽 분량의 백서에는 인수위 출범부터 해단까지의 활동 과정, 민선 8기 군정 방향, 분야·직능별 사회단체 간담회, 공약 사업 정책방향, 신규 정책 제안사업, 군민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는 4개 분과에 15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여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98개 공약 과제를 도출했다. 수심차례 자체 회의의 진행,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 제안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호평을 받았다. 청년,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선 8기 소통 행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수위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군정 방향으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선정했다. 박중석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제안, 건의사항 등의 결과물들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활력이 넘치는 성공적인 민선 8기 진도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짧은 기간에도 훌륭히 역할을 수행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수위의 백서를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반영, 진도군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1 지방선거 후 1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는 등 30일 동안 활동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